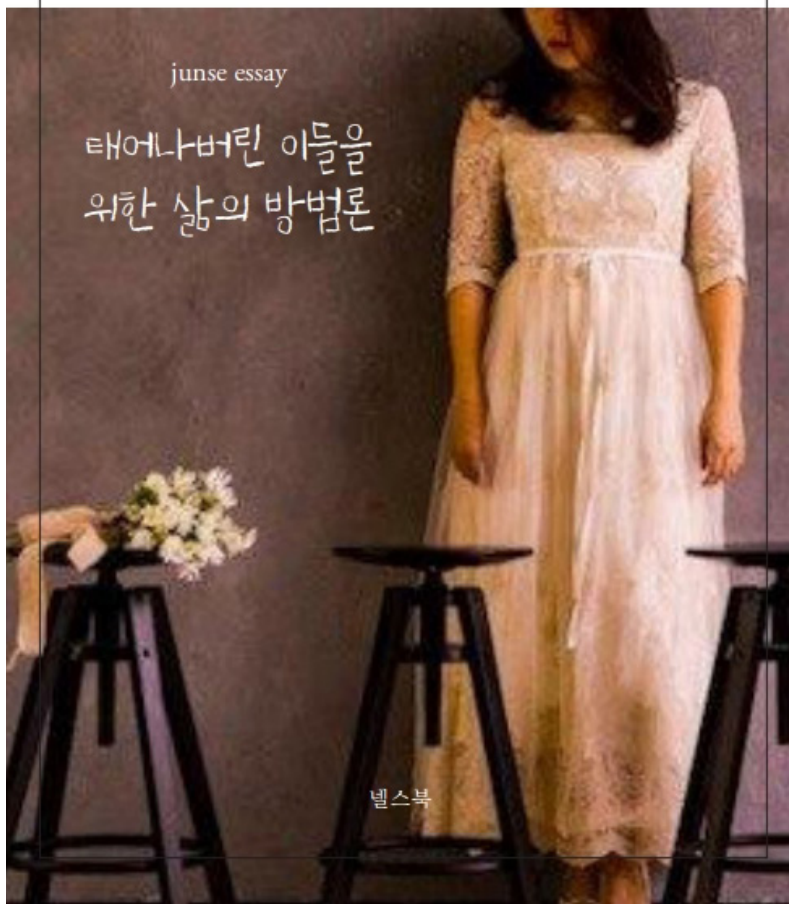


말장난

junse essay

태어나버린 이들을
위한 삶의 방법론

넬스북



말장난

개정판 발행 | 2020년 12월 1일

지은이 | junse

발행처 | 넬스북(넬의 서재)

퍼넛곳 | 넬스북(종이책), e퍼플(전자책)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88

이메일 | contactneilsbook@gmail.com

팩스 | 031-629-6666

인쇄처 | 새한문화사

주소 |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211-2

ISBN 979-11-967395-4-6 (종이책)

정가 | 15,000원 (종이책) 6,000원 (전자책)

저작권자 | ©2019, 이준서

넬스북 브런치 계정 brunch.co.kr/@neilsbook 인스타그램 @wordplayer_

<말장난> 브런치북 brunch.co.kr/brunchbook/wordplay2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자와 도서출판 넬스북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Printed in South Korea

말장난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넬스북

작가의 말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나를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귀찮았고, 누군가의 인정을 크게 갈구해본 적 없으니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나 자신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나를 이해받고 남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은 욕구도 욕망도 없었다. 오히려 말이란 하면 할수록 후회만 쌓였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그것이 꼭 사회와 타인의 기대와 동일 선상에 있지도 않았다. 말수가 워낙 적으니 오해도 많이 샀다. 남한테 관심 없는 만큼 나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사람의 탐욕, 질투, 세속성 외에 세상에 놀랄 일 하나 없다 생각했다. 항상 먼발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세상을 관찰 뿐이었다. 세상의 패턴과 타인의 심리를 읽어내는데 능했지만, 그것들을 구태여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꺾꺾 눌러 쓴 글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인생에 고작해야 두어 명 뿐이었다. 어쩌다 한 번 입을 열면 나이에 맞지 않는 지식과 통찰력에 놀라는 사람들도 그때뿐인 반응에 갈수록 시시해졌다.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깊이 없는 관계에 쉽게 지치곤 하였다. 아직까지 인생에 남겨두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써 놓은 지 4년도 넘은 글을 모아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피눈물과 절망 속에서 썼던 글을 내보인다는 게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무슨 큰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이런저런 여건들이 맞아떨어졌고, 크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 출판을 감행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아 놓은 글은 누구에게 보여준 적 없이 나만을 위해 썼던 글이었다. 오히려 필명으로 낼 것을 고려했을 만큼 작가라는 이미지로 굳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작품이 혹시라도 내 정체성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글의 한계와 비실용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한가롭게 삶과 죽음을 논하는 건 모욕이라 생각했다. 글은 삶의 철학, 자기 정체성, 존재의 가치 등 형이상학을 논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테크와 세상의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동영상, 오디오, 디지털 드로잉 등 나름 끊임없는 도전을 해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섯을 모으는 게 삶의 목표다. 이렇게 보면, 나는 다른 의미에서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2019. 04. June

*이 전자책은 “말장난: 태어나버린 이들을 위한 삶의 방법론” 미리보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억눌린 내면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선물하세요.

*〈말장난〉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개정판 전자책을 찾아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의 무료 배포를 환영합니다.

* “브런치 넷의 서재” 검색해 최신 글 구독하기

수 오

원래 마음이란 번덕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추스르기 힘든 날들이 있다. 불과 조금 전까지도 아무 생각 없던 마음이 별 이유 없이 싱숭생숭하다. 심장의 미동은 점차 증폭되어 손끝 발끝까지 원초적 불안을 전염시킨다. 쓸데없는 의구심이 수면 위로 튀고, 여태껏 살아온 길에 대해 자책을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느새 눈보라로 어지럽다. 이 길이 앞인지도 잘 모르겠다. 아니 애초부터 옳은 길이, 방향이 있었나. 잔잔하면서도 위태롭다. 고만고만하면서도 불안 불안하다. 제아무리 숙련된 외줄 타기인 이라도 외줄을 탈 때마다 어찌 가슴 떨리지 않으리라.

이럴 때면 감정을 탓해보기도 한다. 아무리 무마시키고 둔해지려고 한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한 번씩 고개를 드는 놈이 꽤 씘하기도 하다. 발로 짓밟고 모래를 퍼부어 보아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쥐꼬리만 한 불씨는 다시금 타오른다.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불안은 특히나 더 그렇다. 누군가 잔잔했던 수면 위에 돌을 던졌

으면 그 사람 탓이라도 하지. 물속 깊이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파동은 누구 때문이야 하고 원망할 수도 없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파동은 오로지 내 것인 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여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다. 수학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세상의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 듯이. 알고는 있다. 이것도 한순간인 것을. 다만 당장에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눈보라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가 더 시급한 문제다. 생존에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증폭은 가중된다. 시야를 가리는 눈보라는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얼어붙는 얼굴과 휘몰아치는 눈보라의 배경음악은 극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게 된다. 머릿속에는 고장 난 카세트처럼 일정 구간만 반복 재생된다. 하필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이다. 클라이맥스를 찍기 전 평화로운 폭풍전야의 모습이다. 가장 아름다웠을 때 덮쳐오는 공포가 가슴 깊이 각인되는 법이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완벽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럴 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일종의 방어벽을 쌓는 일이다. 아예 유리병에 나를 가두어 버린다. 눈보라 속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최상의 임시방편이다. 그 속에서 세상을 음 소거시키고, 체온을 회복하며 두 눈을 부릅뜬다. 뿌옇기만 하던 눈보라를 날

날이 뜰어보는 연습을 한다. 눈보라가 아닌 눈 결정체를 본다.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고 눈보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유리벽 뒤에 숨은 내 모습이 비겁해 보일인지는 몰라도, 우선 수면 위로 올라와야 숨을 쉬는 법이다. 한숨을 가득 들이마시고서야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발목에 묶인 해초를 푼다. 어쨌든 다시 유리병 밖에 나가 직면해야 할 눈보라다.

이 눈보라도 결국에는 눈 결정체들의 집합이다. 뾰족하게 날을 세웠지만 손끝만 한 온기만 닿아도 녹아내릴 아이들이다. 가만 보면 조금 덜 날카롭고 여린 아이들도 더러 있다.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나를 닮은 결정체들이다. 나다. 이 결정체들은 나다. 내가 퍼뜨린 씨앗들이다. 내가 잘 보살피고 다듬지 못해 두려움에, 외로움에 이성을 잃은 나의 분신들이다. 그런 나를 인제야 뒤늦게 마주한다.

살며시 유리병에 두 손과 얼굴을 마주 대어 본다.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냉기에 내 몸을 내준다. 유리병 밖에서는 나를 잡아먹기로 작정한 듯한 눈보라가 전심을 다 해 부딪힌다. 종이 울리듯. 유리병이 흔들릴 때마다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낀다. 유리병 밖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그 떨림을 느낀다. 이성을 잃고 증오심에 불타는 그들의 소리 없는 흐느낌이다. 무성영화를 보듯 들을 수 없는 울음이지만, 오히려 너의 떨림으로 인해 전율을 울리는 슬

품이 된다. 한恨이다.

사방에서 스멀스멀 냉기가 올라온다. 조금이라도 더 따듯하겠다고 옷을 감싸 입은 내 꼴이 우스워진다. 차라리 옷을 벗는다. 벌거벗은 몸으로 눈보라를 마주한다. 온몸으로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가슴으로 안을 준비를 한다. 병 안의 온기와 병 밖의 냉기가 만나 유리병이 찌적찌적 갈라진다. 내 두 손을 맞댄 곳에 나의 두 손자국이 생긴다. 유리병 밖의 눈보라도 그 위에 손을 맞댄다. 마주 잡은 두 손 사이 벽에 금이 간다. 내 마지막 남은 온기를 거두어 간다. 그리고 유리병이 완전히 무너져 다시 눈보라 속에 던져질 때나 또한 눈 결정체가 된다.

나의 한기를 나의 온기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다. 차라리 나도 너와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포효가 아니다. 너와 하나가 되지 않고는 너를 진정시킬 수 없다. 우리는 몸을 섞는다. 지난 이십여 년 모른 척 방치했던 너를 이제야 뒤늦게 안아준다. 길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너와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눈다. 그뿐이다. 내 아무리 불타는 태양이 된다 한들, 너의 응어리진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저 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힘껏 사랑한다. 이미 타이밍을 놓쳐 늦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을 이제야 한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불씨가 타오른다. 어떻게 밝아도 꺼지지 않던 그 알밋던 불씨가 또 한 번 불꽃을 일으킨다. 나를 괴롭히던 방해꾼이라고 생각한 네가 사랑을 하는 있는 우리를 둘러 에운다. 쥐꼬리만 하던 불씨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진다. 감정이 격해진다. 영문도 모르고 터져 나오는 눈물은 녹아버린 극악했던 눈보라다. 너를 꼭 부둥켜안고 응어리졌던 울음을 목놓아 터뜨린다. 우리의 흐느낌은 어느새 하나가 된다.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음소거 되었던, 흑백영화였던 세상에 배경음악을 깔고 색을 입힌다. 눈보라에 한 치 앞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열린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태양이 꼭 감은 두 눈 위에 한 줄기 빛을 보낸다. 검은 캔버스 위에 찌이익 지평선을 찢어 그린다. 뿌영던 하늘에 하늘색 물감을 조금 섞는다. 눈 녹는 소리가 들린다. 물이 흐른다. 눈 속에 갇혀있던 싱그러움도 코를 간질인다. 격양되었던 우리도 서서히 그 속에서 몸이 풀어진다. 갑작스레 찾아온 봄에 춘곤증을 느낀다. 사랑을 나누다 자연스레 잠이 든다. 축축함. 따스함. 그 속에서 안도가 밀려온다. 함께 울 수 있어 다행이고, 사랑할 수 있어 다행이고, 내가 소멸 시켜 버리려 했던 불꽃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지나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흑백이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살아 느끼는 공간은 색으로, 음악으로, 향으로 가득 차 있다. 드디어 고장 난 카세트를 내다 버린다.

손끝 만한 온기만 닿아도 녹아버릴 우리였다. 그래서 그날 눈보라가 잠들고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봄을 만났을 때, 우린 함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잔잔한 불씨 하나만 남겨두고.

절박함

너는 얼마나 절박했느냐.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뜨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죽기 직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 명예를 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만이 남기고 갈 수 있는 말일 것이다. 괜히 참을 인忍者 세 번이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너무 절박해 그저 참고 이겨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사랑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

두려움이 엄습해 홀로 전장을 뛰쳐나온 아이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 집으로 돌아가도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 “살아야겠다” 는 절박함에 뛰쳐나왔지만, 막상 도망쳐 나오

고 보니 그것은 충동, 두려움, 도피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어린 병사는 전장을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못하며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차라리 전장에 남아 용감히 싸워 전사했더라면. 차라리 애초부터 징발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전쟁이란 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만가지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절규하고 있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희망 한 톨기 없어 보이던 부대는 승세를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하필이면 자신이 도망쳐 나온 뒤 저럴까 하는 철없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든다. 전쟁터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전우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제야 자신의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느낀다. 그냥 얻어진 승리가 아닐 텐데. 저들이 내놓은 목숨과 절박함이 있었기에 얻은 결실일 텐데. 반드시 승리하여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 병사에겐 부족했으리라. 순간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지 못해 지금의 진퇴양난에 빠졌다. 어쩌면 그를 기다려주는 가족과 고향이 없었더라면 더 처절하게 싸울 수 있었으리라. 쓸데없이 따뜻하게 차려놓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데운 방바닥이 자꾸 생각나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홀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정말 어디 돌아갈 곳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가 되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간다면, 도망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리요.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병사의 진짜 절박함은 시작된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런 쉽 세 없이 부딪혀오는 충과 파를 견뎌내지 못해 얼마나 많은 마음이 깨지는가. 세상 풍파를 함께 겪고 이겨낸 후에도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홀연 듯 변해버릴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남은 사랑은 더 애절하다. 이십 대의 불 끓는 사랑보다 노부부의 잔잔하고 진한 육수 같은 사랑이 더 애뜻한 까닭이다.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낸 노부부에게는 그래서 쉽게 지울 수 없는 짙은 향이 난다. 만약 그들의 움푹 패인 주름 하나하나 사이에 여전히도 봄 같은 수줍음과 장난스러움이 남아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물론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했던 마음조차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히 사랑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헤어지는 것까지 모두 사랑이라고 포괄한다. 아름답노라 노래 부른 꽃 같은 사랑도 어느덧 저야 열매가 맺고, 결국엔 그 열매도 거두어들일 때가 분명히 온다. 다만 그 결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은 무시할 수 없다. 크지만 열매, 매달린 채로 썩어버린 열매, 그리고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은 열매.

그래서 자연스레 너는 얼마나 절박하게 사랑했느냐는 질문이 떠오른다. 그 사람을. 삶 그 자체를. 티끌만 한 후회와 부끄러움 남기지 않도록 너는 얼마나 절박했고 사랑했느냐고.

어쩌면 그 절박한 사랑을 영위하기 위해 자꾸만 아픔 속으로 내 몰아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두렵다. 한바탕 슬픔이 스치고 난 후 찾아온 평온함은 다시 잃기 싫을 만큼 달콤하다. 차라리 그 달콤함을 몰랐더라면 좋으려만. 똥개 훈련 시키듯 겨울이 지나면 기어이 봄이 오고 만다. 하지만 더 두려운 사실은 다가온 봄을 영영 잊지 못해 거기에 안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겨울내내 없으면 죽기라도 할 듯했던 외투, 장갑, 모자는 봄이 오면 모두 장롱 신세로 전락한다. 따스한 햇볕의 달콤함에 지나간 혹독함을 싸그리 잊어버린다. 한때 비장했던 절박함, 강렬했던 사랑 모두 녹아내리고 만다. 어쩌면 진짜 시험은 겨울이 지난 뒤 따스한 햇볕이 비어있는 마음을 간질일 때 시작되는 걸지도 모른다. 진짜 모험은 어린 병사가 전장을 뛰쳐나온 뒤 시작된다.

젊은 청춘의 사랑은 그 마음이 조금씩 식어갈 때쯤 시험에 들고,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사랑은 삶의 동반자가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시작된다.

안이해졌던 마음은 그래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채찍질에 다시 고통스럽게 매질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마 지키지 못한 절박함과 사랑의 대가일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그저 참고 견뎌내는 것일 뿐이다. 전쟁이 끝난 승리의 전쟁터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떠나버린 이의 마음은 그저 시간을 벗 삼을 뿐

이다.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임이 보고 싶은 건 정말로 그저 참는 것 외에 별수가 없다. 이때 다시 엄습하는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절박했느냐에 반비례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다시 얼음이 녹고, 꽃이 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처음의 그 절박함, 사랑하는 마음을 오래 지켜낼 수 있는지. 매 순간 후회 남지 않도록 사랑하고 절박할 수 있는지를.

수용 2

추위 속에서 떠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겨울바람 속에서 춥지 않다고 우기며 별거벗고 다니는 게 더 우스운 일을 뒤늦게 깨닫는다. 강풍 속에서 내가 옷을 벗어야 할 때는 나보다 더 추위에 떨고 있는 이에게 옷을 벗어줄 때뿐이다. 조금 덜 추운 사람이 더 추워하는 사람에게 옷을 내준다. 얼어붙은 손을 잡고 튼 살을 호호 불어 녹여준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우는 게 전혀 이상할 일 없는 것처럼 두려움도 아픔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인다.

혼자서 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초월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 묻고,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본다. 문 밖에서 문 열어 달라 애원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겨울이 두려워 빗장 걸어놓았던 문을 조심스레 연다. 나와 똑같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문 앞에서 서 있다. 문을 열어 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마지막 남은

뜨거운 커피를 나누어 마신다. 내가 들어온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씨를 앞에 두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함께 나눈다. 사실 눈앞의 불씨보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체온이 더 따뜻하다. 그래서 추위에 감각이 마비된 손을 붙들어 잡는다.

살과 살이 닿아 꼭 껴안고 있다. 눈물을 삼키는 법이 아니라 목 놓아 우는 법을 배운다. 내 옆에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음을 위안으로, 마지막 응어리까지 뱉어내도록 축적되어온 응어리를 토한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내 옆에 따스한 온기가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상기시킨다. 눈앞의 휘청거리는 불씨에 장작을 보탠다. 화르르 타오르지는 않아도 은은한 불빛이 고요히 어둠을 밝혀 준다. 아직 살아있음을 느낀다. 춤추는 불꽃에 내가 비친다.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속에 검게 그을려 춤을 추는 내가 있다. 불꽃은 결코 춤을 멈추는 법이 없다. 마지막 꺼져 죽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살아있다고 온몸으로 표현을 한다. 꼬챙이에 옮겨붙은 불씨도 째액째액 숨을 쉬고 있다.

숨넘어갈 듯 한 호흡으로 어둠을 밝힌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온기를 나누어준다. 장작 나무와 하나가 되어 기꺼이 남을 위해 발산하는 빛이 된다. 불꽃 속에 내 옆에 있는 이의 그림자도 들어온다. 어느새 솔로 무대는 듀엣으로 바뀐다. 나 혼자서는 너무나도 컸던 무대가 조금은 더 아늑해진 느낌이다. 눈 앞의 텅 비었던 관중석도 사라졌다. 더 이상 누가 지켜보느냐가 중요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호흡이다. 우리만의 무대다. 춤을 추다 못해 춤이 된다. 불꽃에 비친 그림자가 아닌 불꽃이 된다. 우주에 퍼지는 온기가 된다. 너무나도 크고 차가웠던 우주를 녹인다. 하나의 행성에 불과했던 무대를 벗어나 마그마처럼 흘러내리는 우주 속을 휘젓는다. 녹아버린 우주에는 촘촘히 박힌 셋별과, 행성과, 운성들이 있다. 우주는 곧 레드카펫이 된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 걸음마다 별이 수 놓인 카펫을 깔아준다.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재탄생한 우주다. 이제는 우리도 우주가 된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겨울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 갔었다. 신발을 벗어두고, 더 멀리 내다보며 나아가기 위해 살얼음이 낀 겨울 바다 위를 건고자 했다. 신은 두려운 게 없으니, 바다 위를 나 홀로 걸어가야 했으니. 자극이 필요했다. 발바닥 밑에서 전해오는 한기만이 나를 각성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차가운 겨울 바다를 건너며 그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마비시키자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없어질 때쯤, 미련도 후회도 없이 영영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다가 나를 삼켜주기를 바랬다. 야속하게도 바다는 나를 삼키는 법이 없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자신을 얼려 내게 길을 내어줄 뿐이었다.

그렇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바다를 따라 걸었다. 수십 년이 지나, 수백 년이 지나 눈물조차 바닥날 때까지 나아갔다. 왜 나에게 길을 내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걷고 걷고 또 걸어도 원망의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바다 위를 걷는 건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오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엔 도저히 끝이 보이질 않았다.

두려움도, 원망도, 불안도 모두 그대로였다. 수역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그제서야 발걸음을 멈췄다. 온몸에 힘이 빠져 눈이 스르르 감길 때, 바다는 비로소 나를 거두어주었다.

바다의 품에 처음 안길 때, 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은 내가 항상 걷던 겨울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면 위에 일렁이는 햇살은 너무나도 간지럽고 따스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기억을 깡그리 없애주었다. 따스함에 취해, 웃음에 취해 점점 더 깊숙이 바다의 품으로 파고 들어갔다. 절대로 헤어나가고 싶지 않은 품속에서 처음으로 어리광을 부리며 오래전에 말라버린 눈물을 또다시 터뜨렸다. 네 품 안에선 괜찮았다. 바다인지 눈물인지 구분조차 안 되었으니. 똑같이 짙고, 똑같이 투명하고, 똑같이 흐르는 액체였다. 내가 영문도 모르고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나의 곁에서 눈물을 흘려주었다.

어린 나와 늙은 당신

어린 내가 불안할 때는, 늙은 나라는 당신께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네 살 적의 아빠 손 잡고 부엌으로 향하던 나를 꺼내 보고, 열여섯 살 적 부모님이 찾는 줄도 모르고 밤새 놀이터에서 동네 언니와 수다 떨던 나를 꺼내 본다. 서른넷, 한창 공부가 무르익어 있을 나를 엿보아 불러내고, 마흔의 한 공주님의 어머니가 되어있는 나를 꺼내 불러본다. 이제는 그저 잠잠히 행복을 찾고 삶을 영위하는 육십의 나를 부른다. 그리고 여든에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불러다 쓸데없는 걱정애 발목 묶여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나를 꾸짖어 달라 부탁한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고도 아름다우니, 정신 차리고 어깨를 당당히 펴라고. 당신은 아직 철없지만 한 내 등짝을 쓸어내리며 조용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아가라고. 당신 잘 해낼 거라고. 잘 해내 왔다고.

그러면, 나는, 당신의 지나온 세월이 베어나오는 옷 냄새에 그저 머리를 박고 한참을 흐느껴 운다. 내가 찾던 사람 향내가 당신에게서 오롯이 묻어 나오는 게, 장하고 기특하기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향내를 내 몸소 피워보고 싶단 소망이 간절해지기에. 곱게 주름진 당신 손과 얼굴을 쓸어내리며 어린 내가 늙은 당신을 안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린 내가 당신 하얘진 머리를 연신 끌어안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토닥여준다.

어느 순간 한 살 적 나부터 여든의 당신까지 우리를 둘러싸우고 축가를 불러준다. 하늘의 길이 열리고, 비단옷을 입혀주고, 얼굴에 분을 발라주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다 치켜세워준다. 이마에 새빨간 핏덩어리를 달고 태어난 나는 늙은 당신의 품에 안겨 이제 막 박차고 나온 세상을 향해 울어댄다. 당신은, 비단옷을 입고 성스럽도록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당신은, 말없이 나의 땀줄을 끊고 당신 비단 옷으로 몸의 그 핏덩어리를 닦아준다. 늙어 쭈그러진 가슴은, 어느새 풍만한 모유로 차라리 핏덩이에게 젖을 물린다.

이 경건함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에게 당신은 그저 말없이 파스한 미소만 지어 보인다. 그 모습에 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나머지 “나” 들과 함께 씬 새 없이 눈물만 흘린다.

외로움에 휩싸인 십 대의 나, 두려움에 질려버린 스무 살의 나, 삶에 짓눌려 지쳐있는 마흔의 나, 더 이상 크게 바랄 것 없다 웃고 있는 예수의 나를 두고. 제일 연로하신 당신은 그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핏덩이에게 환영의 젖을 물린다. 앞으로 아주 많이 힘들고 외로울 테지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당신은 존귀한 존재라고. 아름다우시다고. 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잃지 말고 커가시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어리에게 자꾸만 젖을 물린다. 눈 속에 박힌 보석 잃지 말라고. 갓 태어난 나는 당신 마음 다 안다는 듯 깨끗한 눈으로 나에게 젖을 물리는 늙은 당신을 푹뭉뭉 바라볼 뿐이다.

탄생

백 마디 말보다 사랑이 푹푹 떨어지는 눈빛 한번이, 찌릿하게 살갓을 스치는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다. 아직 얼굴조차 모르는 어미의 내리사랑에 세상을 이해받고, 자그맣게 고통치는 심장은 영혼을 흔들다. 태아는 미처 성장을 마치지 못한 입술을 오물이고 고사리 같은 손을 움직여 그 사랑을 그려보고자 한다. 하지만 자궁 안에 웅장히 메아리치는 제 어미의 목소리에 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둔다. 당신의 사랑은, 영혼과 영혼이 접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으로도 함부로 그릴 수 없다. 얼굴도 모르고, 말 한마디 나누어 보지 않고도 자신을 존재케 하는 사랑에 숭고함을 넘어 탄생의 목직함을 느낀다. 땀 줄의 떨림만으로 당신의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을 구분한다.

당신의 숨소리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고 탄생한다. 아직 만나본 적조차 없지만, 매일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순간순간 영혼을 나누는 사람이다. 사랑받고 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

는 그런 존재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의 속명으로 엮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궁을 찢고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이다. 알 듯 모를듯한 응응거림이 퍼지는 표정이 탄생하기 이전의 공간이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람의 눈빛이 읽히고,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진다. 앞으로 태어나서 아주 많은 말과 생각을 나눌 그대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온몸으로 교감한다. 말은 무겁다. 글도 거추장스럽다. 어떤 매체도 통하지 않고 가녀린 흐느낌과 호흡만으로 사랑한다.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짝지어온 운명이라는 것을 어찌 감히 거스를 수 있으랴. 사랑하는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 탄생의 순간만을 손꼽아 왔단 걸. 아직 느껴본 적 없는 당신의 손길과 입맞춤이 그리워 세상에 태어났다.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지만 이미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힘들었던 날들, 나를 그리워하던 날들, 행복에 젖어 황홀해하던 날들 따위가 태아의 무의식 속에 심겨있다. 그래서 더 궁금하다. 이 모든 교감을 함께 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쩌면 무지하기에 용감할 수 있었다. 어머니, 당신 한 사람이 궁금해 자궁밖에 머리를 내밀었다. 이 탄생이, 세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몰랐다. 텃줄 하나에 의존하던 삶을 포기하고 태어났다. 나로 인해 울고 웃던 당신은 누구인지. 일 년 가까이 나

에게 사랑 노래를 속삭여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탄생과 죽시에 직감한다. 낯선 세상의 빛과 공기가 달콤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태어나버린 마음 앞에 나는 어찌면 앞으로 몇 번이고 망가질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당신을 미워할 지는 몰라도 죽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눈이 멀어버릴 듯 세상은 밝았고, 처음 들이마신 공기에 폐는 타들어 갈듯한다. 탄생이란 이렇게 아프도록 황홀한 것임을. 사랑으로 태어났기에 세상의 온갖 쓸쓸함도 함께 안고 태어난 것을.

그렇지만 그리도 그리워하던 당신의 눈빛 한 번에, 살의 온기에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수억 번도 더 그려본 당신의 얼굴이 내게 내려와 입맞춤을 수놓는다. 나의 성급함을 용서받는다. 나의 탄생이 구원받는다. 이마에 맺힌 핏덩어리를 닦아주고 땀줄을 잘라주는 당신이 고맙고 아파 목을 놓고 온다. 그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저주스럽다. 그댈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내가 자랑스럽다.

노인

종종 빨리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주름살이 패이고, 검버섯이 피고, 손등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된다. 단지 멀찍이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를 속삭이고 있는 나이의 내가 있다. 더이상 오늘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나지막한 노인. 세상 모든 것을 가슴으로 껴안고, 눈빛 닿는 곳마다 사랑이 묻어나오며, 깊은 주름만큼 잔잔히 퍼지는 미소에 나는 오래도록 찾던 삶의 의미와 숭고함을 찾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내 철없는 성급함과 잠재우지 못하는 불안을 빨리 뛰어넘고자 하는 비겁함일지도 모른다. 어린 마음을 감추지 못해 초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나의 맹목적 동경일지도 모른다. 늙은 내가 더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란 보장 또한 없다. 내가 반드시 지혜로워질 것이란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린아이

와 닮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보다 삶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온 나이기에, 나는 죽음을 앞둔 적지 않은 내 나이를 앞두고 비로소 나를 받아들이고 평안을 찾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반가워할 것이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감사해 하면서도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조용히 떠나고자 할 것이다. 내가 평생 흘린 눈물은 비로소 나를 태우고 증발할 것이다. 죽음 이후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비로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날 것이며, 단지 그 속에 티끌만 한 후회가 없기를 기도할 뿐이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만큼 세상이 나를 위해 울어줄 필요는 없다. 내 탄생이 급작스러웠던 것만큼 내 죽음 또한 소리 없이 나를 거두어주길 바란다. 내가 죽는 순간, 세상에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 하나 남겨놓지 못한다 해도,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에 그 속에 원망도 증오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이름 없이 내려왔고 또 이름 없이 돌아가기에. 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은 내 소망대로 결국 죽음으로 회답 받을 것이다.

죽음 앞에선 노인은 비로소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것이며, 그 속에서 자신이 한평생 찾던 안식처가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그가 찾아다니던 사람 또한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

으며, 죽음 앞에서야 당신 발에 입을 한 번 맞추고 떠날 수 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때 노인의 얼굴은 더이상 노인의 것도, 어린아이의 것도, 여자의 상도, 남자의 상도 아닐 것이다. 그대의 육신은 더이상 너무나 커져 버린 당신의 영혼을 담을 수 없기에, 얼굴 없는 하나의 빛이 될 것이다. 스스로 빛을 발하다 못해, 빛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당신을 나는 그저 땅 위에서 올려다볼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오랜 희망대로, 당신의 빛은 많은 이를 어루만지지만, 어느새 또 곧 잊혀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결코 온전히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가히 글로도 말로도 기록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저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들렀다가 떠난 세상의 손님이었기에. 당신의 떠나감의 유일한 목격자인 나는 아마 당신을 위해 울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을 향한 기쁨과 축복의 눈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금방 잊을 것이다. 당신의 육체적 부재와 상관없이 당신이 보여준 빛으로 나는 일정 기간 살아가다 이내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아직 한없이 어리석은 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다 문득, 바람 속에서 당신의 체취를 맡고,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당신을 느낄 때, 나는 그저 말없이 하늘을 향해 한 번 웃어 보일 것이다.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기에. 더 이

상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없기에. 늘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워하지 않기에. 나는 당신을 잊을 것이다. 이미 당신이 떠나 버린 세상 속에 아직 나에게 남은 건 당신이 내 속에 심어준 미소 그 하나일 뿐이다. 그 미소 하나로 당신의 삶이 축약되기에. 그 웃음이 당신이 떠나기 전 내게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기에.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미소조차 잊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노인이 되는 날, 나는 당신의 미소를 뒤늦게 기억하고 나를 또 한 번 떠나보낼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그렇게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로 남았다 지워질 것이다.

세상과 삶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단지 그 위에 얹혀있던 삶뿐이었다.

변할 것이 없었다. 세상이라는 형상은 아주 단순하고 조약하였기에. 무언가 더 있겠지 하는 기대는 그저 마음 갈 곳 없는 상실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래서 그 볼품없는 모습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삶이라는 빛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였다. 한결같이 보이던 세상에 형형색색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명암이 생겼다. 낮과 밤이 생겼다. 단조롭던 일상을 낮설게 바라보기를 연습했다. 세상이라는 같은 무대 위에 삶이라는 빛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풍경을 연출했다.

익숙함 속에 낯섦이 겹쳤다. 모든 것이 모호해졌다.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어제 내가 사랑했던 동일한 하늘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항상 한 가지 빛으로만 바라보던 세상에 여러 광선이 쏘

이며 익숙한 듯 낯선 형상을 그려내었다.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하늘은 내가 알던 세계의 하늘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같은 풍경 다른 시각이 마음에 쏙 드는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익숙한 듯 낯선 모습에 변해버린 건 세상인지 나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도대체 무엇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세상은 환영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서야 나는 진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혹은 그 역이 성립할지도 몰랐다.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가운데, 단지 적응이라는 길만이 남아있었다. 이 모든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건, 나를 태어나게 한 불안이라는 태초의 씨앗, 오로지 그 하나였다. 아직도 굳혀지지 못한 마음은 그 태초의 씨앗 하나를 붙잡고 느끼게, 그리고 조금은 어색하게 적응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말랑말랑한 마음이 아직 흔들리는 건 차라리 다행이었다. 불안 속에서 태어난 마음이기에 함부로 안정되지 못했다. 이제는 그만 정착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단 생각을 막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불안이라는 토대였다. 그렇게 저주스럽던 태초의 씨앗이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멈출 줄 모르는 미세한 파동에 마음은 함부로 굳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태했다. 일시적 생존을 위한 적응이지만, 온전히 적응하는 순간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기에. 그리고 그 멈춤은 곧 고립이요, 도태로 이어질 것이었기에. 그래

서 차라리 불안 위에 짝튼 마음에 경의를 표했다. 죽을 만큼 괴로우면서도, 고통스럽기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교차하는 감정 속에 마음이 갓난아이 머리마냥 조금 더 오래 유연하게 남아있기를 기도했다.

새롭게 바라보는 세상이 신선하면서도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몸 어딘가 벼룩이 물기라도 한 듯, 정확히 꼭 짚어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신경을 건드렸다.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밀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침내 적응을 마쳐가던 이에게 또 다른 삶이 던져진 것은 꽤나 큰 불편함을 감수할 일이었다. 새로움이란 그랬다. 무언가 신선하면서도 참으로도 성가신 것이었다. 또한 새로이 던져진 풍경에 내가 무사히 적응하거나 마음에 들어 할 것이란 보장도 없었다. 이전 삶보다 무언가 나아진 것 같다 느끼면서도, 분간되지 않는 진아와 현실에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진정한 발전이란 있는지, 아니면 그저 환원 불가능한 n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이것이 진보가 아니라면 수시로 변화하는 세상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할 터였다.

굳이 이번 세상에 이름을 붙이자면 웃음과 행복쯤이 될 듯하였다. 그동안 편협된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세상이 흔들렸다. 가치관, 고정관념, 신념, 규율, 도덕, 언어가 무너져내렸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시 쌓아 올려졌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것들에

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다.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이 제 형상을 드러냈다. 본질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은 나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추었다. 또 한번의 적응을 거쳤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본질에 관한 질문은 답해주지 못했다. 지나간 삶의 잔향과 밀려오는 새 삶이 충돌했다. 기억이란 놈은 어느새 추상명사가 되었다. 직관, 감각만이 남았으나 그것들이 공정하게 과거를 대변해주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이미 수백 번을 거처온 과도기지만, 아직 지나온 길의 배에 달하는 길이 남아있었다.

성장

문제는 내일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라 들었지만,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나면 다음 날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하루 뒤에는, 사랑 뒤에는 드라마틱한 엔딩이 필요했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나듯 장엄한 노래가 퍼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더이상 주인공들의 뒤 훗날 이야기를 궁금해해서는 안 됐다.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여정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세상의 존중과 침묵이였다. 하지만 삶에서의 끝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질기고도 질긴 목숨은 죽음을 쉽게 허용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내고 난 하루 뒤에는 너의 마지막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래된 태양이 떠올랐다. 지독히도 무관심하고 고집스러운 세상은 네가 함부로 주연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를 살아낸 너의 노력은 으레 당연한 의식에 불과했다. 네가 얼마나 울고 웃었던 어쨌든 세상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유한했다. 세상

은 너를 위해 울지도, 시간을 늦추거나 멈추는 일도 없을 터였다. 네 삶이 비극이었다면 그 비극이 더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까지 지구는 자전할 것이었고, 네 삶이 희극이었다면 네가 또 다른 희극이나 비극을 마주할 때까지 해를 띄워 보낼 것이었다. 네 삶이 정말 절박했다면 너는 다음 날 다시 눈을 뜨면 안 되었다. 죽을힘을 다한 너의 일침에 세상은 마침내 너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용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하루 앞에 너는 매일같이 숨 막히는 삶의 공포를 마주했다. 너무나도 쉽게 떠지는 눈꺼풀에 너는 아침마다 울부짖고 절망을 했다. 몸속의 모든 수분을 배출한 듯 울어 재깁 후에도 너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숨결에 너는 허탈한 듯 광기 어린 웃음을 쏟아낸다. 울음과 웃음이 더이상 구분되지 않을 때 너는 그 어떤 감정도 표출하기를 멈춘다. 단지 희미한 숨소리만이 너의 생존을 말없이 알린다. 풀린 눈으로 올려다보는 우주가 네 하찮은 몸뚱아리 위에 무너진다. 어쩌면 너는 저주받은 불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닐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너는 살아 남고야 만다. 그렇게 수 천 번의 지옥의 반복 끝에 너는 문득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낸 하루가 잔인하도록 덧없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너는 차라리 가벼워지기로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기로 한다. 대단하다 믿었던 삶을,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더이상 아픔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

도록, 더이상 슬픔이 아무런 감정도 담지 못하도록. 자꾸만 웃어 보이고 자꾸만 떠들어보인다. 그것이 더이상 가면이 아닌 너의 진실한 얼굴이 될 때까지. 시간의 힘을 빌리기 위해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다. 평생 걸쳐도 버리지 못하리라 믿었던 기억을 해변 위의 그림을 파도 쓸리듯 지워버린다. 희미해질 것이었다. 가벼워질 것이었다. 보잘 것 없는 네 삶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혹시 누군가가 불어버린 너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너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대하고 소중한든 간에 시간과 기억의 싸움에서 기억이 이길 일은 결코 없었다. 희미해져야 했다. 가벼워져야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나도 무거웠던 이야기의 사소함을 인식할 것이기에. 차라리 그 시간을 앞당기기로 한다. 굴복보다는 적응이라는 말로 너의 결정을 합리화한다. 너는 그렇게 성장한다고 떠들어대지만, 그토록 수치스러운 성장이 너는 자랑스럽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너는 그동안 무언가 대단한 삶이라도 살아온 양 떠들어댔던 모습을 참 어렸다고 씩씩하게 웃어 보인다.

너의 적응은 어쩌면 비겁함이었으리라. 성장이란 맹목하에 상실과 망각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만다. 너는 뒤늦게 지독히도 혐오했던 너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했었음을 깨닫는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영혼을 바로 네가 사랑했음을 깨닫는다. 자기애와 자기부정이 충돌한다. 역겹다. 사랑스럽다. 혐오스럽다. 아름답다. 수치스럽다. 소중한다. 수백 번도 넘게 너를 껴안았

다 내친다. 그 과격한 충돌사이에 너의 몸은 멍과 피로 번진다. 살갗이 찢어지고 얼굴이 부어오른다. 너의 하얗고 보드랍던 살갗은 어느새 검버섯이 일고 뼈만 앙상히 남은 노파의 것이 된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어린 너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한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어정쩡한 너는 떳떳하지 못한 성장에 죽여 버린 어린 너를 위한 조촐한 장례식을 올린다. 죽음의 세례를 통해 어린 너의 영혼은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삶의 무게는 이제 어른아이인 내가 짊어지기로 한다. 버거웠던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잔잔히 읊는 추도문은 진부한 문장 몇이 적혀있을 뿐이다. 특별한 한 편의 극인 줄 알았던 삶은 그렇게 사소한 몇문장으로 축약되었다. 소중한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어를 버리고, 글을 버린다. 혀 뿌리를 뽑고, 손가락을 잘라낸다. 귀를 잘라내고 두 눈알을 뽑아낸다. 두 번 다시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을 보지도 들을 필요 없도록. 병신이 된 몸으로 너는 세상 앞에 나체로 서 보인다. 마치 사과를 따먹기 전 이브처럼. 슬픔을, 부끄러움을, 절망을 너는 모른다. 너의 성인식에 천둥 번개가 치고 강물이 범람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던 너의 영혼에게 세상이 동정을 보인다. 그렇게 너는 세상에 너의 순결을 내준다. 하지만 그마저도 순간일 뿐, 세상은 이내 다시 잠잠한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사람들은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너는 순수함 대신 끔찍한 외로움이란 말을 처음 배운다. 가슴 깊이 각인된 외로움이 너의

평생 동반자 아닌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

행복보다 절망이 더 쉬웠던 너는 그렇다면 더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한다. 행복해져 보자. 외로움을 안고도, 세상의 끝자락에 서고서고 행복해지자. 절망과 불안이 일상이었다면 감히 한번 행복해져 보자. 유치찬란한 세상을 향한 복수는 아니다. 너의 행복은 너의 슬픔만큼이나 아무런 의미도 담지 못할 것이다. 단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기로 한다. 별 생각 없이 걷던 길 위에서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꾼다. 절망이 어째서 이상한 일이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너는 이제 절망을 깨고 나와야 한다. 동굴 밖을 기어 나온다. 오랜 시간 암흑에 익숙해진 동공이 처음 보는 햇살에 반응한다. 그 찬란함을 감당할 수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절망보다 두려운 행복이다. 햇살 냄새가 숨 막히고 높은 하늘이 너를 압도한다. 하지만 이내 동굴 깊숙이 묻어놓고 온 어린 너의 시신을 생각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눈을 부릅떠 보인다. 멀어버린 눈에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예전과는 다른 노래를 담고 흐른다. 세상의 빛에, 그리고 눈물에 너의 시야는 흐려졌지만 두 동공만은 지평선 너머를 날카롭게 응시한다. 알지 못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단지 그것은 어릴 적 동화 속 요정마냥 상상의 존재는 아닐까 유추한다. 네가 들은 행복은 환상일지도 모른다. 단지 하나의 전설일지도 모른다. 손으로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행복을 어찌 잡을지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세상 밖에 나와 와르르

무너지는 마음과 터져 나오는 울음 속에서 너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다. 하나의 작은 생명을 발견한다.

팽창된 세계

한 번 팽창된 세계가 다시 응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바늘구멍 같은 자궁을 찢고 탄생하였으니 탄생의 고통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확장된 세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탄력성을 잃고 너털너털해진 몸조차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사는 곳이 달라졌으니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10개월 동안 같고 닳았던 모든 삶의 지혜가 무용해지는 우주에 도달했다. 고집해오던 삶이 무의미해진다는 건 꽤나 절망스러운 일이다. 단지 하나의 삶을 부여받았고, 생존하기 위해 그 삶을 종교로 받들곤 했다.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됐는지 옳은지 판단할 길조차 없었다. 부여받은 삶은 하나의 절대적 업보였다. 단지 삶이 눈앞에 놓여있기에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내가 사랑을 주면 똑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게 당연하던 세계였다. 다른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채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한 곳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예고도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

재하던 하나의 작은 세계가 무너진다. 나만을 포근하게 감싸던 양수가 별 의미 없는 액체가 되어 세상에 배출된다. 일 년 가까이 함께 숨 쉬던 세계가 소멸된다. 지켜오던 평화와 삶의 방식이 이제는 팽창된 우주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비좁았는지를 깨닫는다. 문득 내가 사랑하던 가치관, 언어, 세계를 모두 배반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다. 팽창된 세계의 잣대에 의하면 내가 고수해오던 삶은 이제 구시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렇게 갈망하여 닦고 닦던 삶의 업보들이 터져버린 양수와 함께 배출물이라도 되는 양 하수구를 타고 내려간다.

오랜 기간 이 작은 세계 속에서 장악하고 싶은 게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는 이미 세상은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심지어는 이상을 이뤄낸 나조차도 이전의 내가 아님을 직감한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난 뒤엔 세상도, 자신도 달라진 지 오래다. 이상은 이상 그대로 일지 몰라도, 콘텍스가 변해버린 한 이상은 이전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같은 검을 쥐고도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이 될 수도 있고, 새까만 피를 묻힌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선과 악은 무의미하다. 선악이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정의되기 마련이다.

탄생 이전의 세상이 존재 그 자체였다면 이제 시시각각 변동하는 세상에선 내가 직접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수동적 태세에서

능동적 태세로 변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쥐었다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 어디 불평할 곳도 없다. 숭배하던 신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나를 지켜주던 세상도 소멸된 지 오래다. 홀로 세상에 태어나 버린 비애를 어디 호소할 곳도 없다. 탄생과 함께 내지른 괴성은 광대한 우주 앞에서 메아리 한 번 치지 못하고 사라졌다. 태어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한 가슴 앓고 산다. 아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죄책감을 털어내고 털어내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양수와 함께 흘러보낸 세상이 그리워 눈물을 쏟지만, 그 울음마저도 결국엔 거두어야 한다.

재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두 발로 걷는 법을 배운다. 정신적 교감으로 이루어지던 대화도 이제는 언어를 필히 수단 해야 함을 습득한다. 탄생과 함께 몸에 각인된 생존 본능에 몸을 맡긴다. 아직은 이 강박증적 생존 본능만이 내 삶을 가능하게 할 제물이다. 그렇게 생의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는다. 이 사소한 부스러기들이 하나둘 쌓여 다시 살아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삶이 비극이어선 안된다. 삶이 고삐 풀린 말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두어서는 안 된다.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삶이란 최대한 밝게 빛나고 어여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설령 어느 날 또다시 파괴될 고집이라 해도, 새로운 땅에서 살아 숨 쉬는 삶이란 아주 진귀하고 성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내가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눈물이어야 하고, 내가 연성을 높인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의만을 위한 것이 여야 한다. 새로운 세상에 안착하되 자궁 속에서 부르던 노랫가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지켜주던 포근함, 안락함, 사랑, 그리고 온기 따위를. 탄생 자체는 비극이었을 헌정,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분명 어둠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던 빛 조각 덕분이었기에.

모두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되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척박한 세상에서 상대에서 먼저 신뢰를 심어줄 줄 알아야 한다. 울곧고 강인하되 그 속에서 섬세한 감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같이 추잡하고 비열해져서는 안 된다. 상반된 배경에서 오는 이들이라도 결국엔 모두 생의 숙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것 잊으면 안 된다.

내던져진 세상에 척박하고 실망스럽다면 더더욱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수성을 모색해야 할 이유다.

팽창된 차가운 우주 어딘가에서도 또 다른 꽃이 존재한다 믿는다. 작은 손짓, 떨림 하나에도 활짝 피는 그런 꽃을.

한계와 극복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깨부수고 깨어 나오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 달린다.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 살아나간다.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인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따위가 궁금했다. 온몸으로 부딪히고, 온몸으로 뛰어오른다. 형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는 법을 배운다. 그 누구도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던져진 자는 없다. 그러니 세상에 던져진 이상 나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꽃을 피우기로 한다. 피워내는形形色색의 꽃들 중 대부분은 얼마 가지 못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한 뼛기 꽃송이를 피워낸다. 나의 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꽃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내 탄생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니. 힘들어도 이겨내라. 아파도 한 번도 입술을 물어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면, 세상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라. 우주의 중심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현실이란 한편으로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그러므로 더더욱 영롱하고 고귀하게 거라.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하게 여물 거라. 세상이 가혹해질수록 나의 빛은 나날이 찬란해질 터이니.

깨고 나오고, 절망하고, 또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을 온몸으로 맞아라. 윤회처럼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마침내 부끄러움 없이 나를 드러내는 법을 배울 터이니. 믿어라. 그리고 행동하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힘껏 꺼안되,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법에도 익숙해지거라. 홀로 마주하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지나가는 순간순간 또한 무한히 감사할 줄 알아라. 세상의 만사는 무엇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정의를 위해 싸워, 내가 이 세상에 빛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꺾여도 좋다. 반불구가 되어 다시 걸을 수 없어도 좋다. 견지 못하면 무거운 육체를 던져버리는 법을 배울 터이니. 마침내 영혼의 자유를 얻고 더 낮은 곳에서, 혹은 더 높은 곳에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법을 익힐 터이니. 매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나를 성숙시키고 채찍질할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아라. 더 실패하고, 더 절망하고,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할 곳까지 떨어져 보아라.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절망의 늪에서 나는 어느 순간 몸의 긴장을 풀고 어둠 위에 떠다니는 법을 익힐 테니.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수영해 나가는 법을 배울 테니.

인생이 쓰라리다는 것은 더더욱 나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증표이다. 지금 아니면 이겨낼 기회가 없을 인생의 쓴 맛을 취
할만큼 모질게 이겨내보아라. 그리고 마침내 한계에 다달았다
생각했을 때, 한번 더 초인의 힘을 내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
게 꿈 하여라. 가장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마지막에
는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보라! 내가, 이렇게 이겨내지 않았
느냐고. 새로이 태어나고, 또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매
일, 매달, 매해 나의 성장을 기록하라.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것
은 생존이 아니라, 발전의 속도임을.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지분을 하
나 지어나가라. 나의 삶이 가장 고독하고 힘든 것 같아도, 믿
어라, 이 외로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세상에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도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투성이
라고. 이 공통분모야 말로 내가 더 강해지고 따듯해져야 하는
이유란 것을. 누구도 피워낼 수 없는 나만의 꽃을 피워내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없는 사랑조차도 만들어 퍼줄 수 있
는 사람이 되라고. 베풀고 또 베풀어라. 누군가 고독을 깨고
먼저 손을 내밀것을 고대하지 말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껴안
고,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이 세
상 누군가 또한 울음으로 대답할 것이니.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 더 필사적으로 복을 올려라. 희미한 목소리가
증폭해 세상을 울릴 때까지.

세상의 물결을 타는 법을 배우되, 그 속에서 내가 가야할 길을 완전히 잃지 말거라. 조금은 돌아가도 좋다. 다만, 마지막 희망만은 놓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큰 물줄기는 잡아두되, 작은 물줄기를 터놓는 법도 두려워 하지 말거라. 고지식함이 아닌 굽히고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배우라. 늘상 밝기만 할 수는 없어도, 어둠에 잡아먹히는 일은 없도록 하여라. 음지에 있어도 양지로 걸어나오는 법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것을 깨고 나온 뒤 바라보는 세계는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작품후기

그동안 책을 쓰고 작품후기(?)를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에 대한 사뭇 고정적인 선입견이 몇가지 있었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 내가 내 작품에 대한 후기를 쓰는 건 뭔가 싸질러 놓은 말에 대한 포장지를 벗대이는 가식적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문학작품을 써야 작품해설이나 후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말장난> 같은 경우 특히나 글을 완성한 시기와 출간된 시기 사이 무려 4년이라는 텀이 있어, 그동안 바뀌어버린 나의 사고가 원본은 왜곡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다. 게다가 나는 이 책을 쓰며 이미 원없이 할 말, 못할 말을 모두 털어 놓았기에 글에 부연 설명할 일이 없었다. 사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은 독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믿어 나의 생각을 억지로 주입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해석이 아닌 독자의 해석으로 작가 또한 새로운 시각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작가가 개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을까. 원체 말이라는 것이 단 두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져도 그 뜻이 완벽히 전달되기는 불가능한데, 하물며 책 한 권으로 독자와 소통을 한다는 건, 그 뜻을 완벽히 이해하면 그것이야 말고 지루한 기적이었다.

둘, 글을 처음 탈고 했을 당시,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에게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과 느낀 감정들은 분명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어떠한 우위를 줬지만, 내가 정식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의사가 아닌 이상 1인칭 시점 말고 3인칭 시점으로 나의 상황을 묘사하기에는 역량이 딸렸다. 비유를 하자면, 꿈은 내가 꿰지만, 꿈풀이는 꿈해몽가가 더 잘하는 것과 같았다. 나 또한 1인칭 시점에서 나의 경험담을 공유할 뿐, 그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나 과학적 진단(?)과 분석은 완벽히 내리지 못한 탓이다. 나도 내가 뭘 모르는 지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첨가한단 말인가? 글을 쓸 당시에는 나름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방대한 양의 조사와 자문을 구했지만, 결국 시간만큼 나를 객관적으로 납득시켜주는 해설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한 후에야 내가 겪은 일과 감정에 대한 총체적 그림을 맞출 수 있었다. 아마 정말 썩듯하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말장난>을 출판하게 된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의 작용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마지막 가장 큰 이유는, <말장난>은 이미 나에게겐 지나가버린 과거의 한 단원인데, 더 성숙해버린 사고로 내 과거의 생각을 타인에게 피력하는 것이 모순적이기도 하고 생각치 못한 고역이었다는 점이다. 출판이라는 것이 탈고를 하는 것은 겨우 첫걸음이고, 결국 내가 내 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같은 말을 씹박하게 반복하며 마케팅을 하는 일이다. 글은 글이고, 책도 결국 하나의 제품인

데,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을 홍보하는 기분이 들어 작품을 다시 들춰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게 바로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재입대의 악몽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책을 처음 접한 독자가 처음 읽는 내용이니 이게 무슨 생오버인가 싶겠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만큼, 나는 그저 책을 열어 출판을 했으니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 *

이러한 나의 고집을 바꿔 놓는 데는 나를 치유해준 시간과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컸다. <말장난>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한마디로, “뭔가 엄청난 걸 읽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였다. 그래서 첫 장만 7번 읽었다는 독자분도 계셨고, 처음에는 뭘 소린지 욱하면서 읽다가 점점 빠져들어 자기도 모르게 심오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독자분도 계셨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않았지만, <말장난>을 빌미로 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엔 얼추 아는 지인들도 있었고, 얼굴을 모르는 독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적으로 제법 저명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 나는 이 책을 불안과 절망에 취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하거나 높으신 분들조차 글이 어렵다고 종종 평하곤 하셨다. 내가 나에게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느낀 지금에서야 이 말을 반추하자면, 당시에는 나도 결국 내 생각과 감정에만 취해 나 스스로를 완벽히 이해하

지 못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글이 풀어졌나 싶기도 하다.

나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본떠 글자로 옮겨 적은 것 뿐이니, 당연히 나에게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글이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온전한 그림 -- 즉,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작품을 쓰는데 끼친 영향 등--을 제외하고 글뭉음만 딱 던져놓는 건 문제를 끝까지 읽어주지도 않고 문제를 풀라는 것과 동일한 일임을 깨달았다. <안네의 일기>가 일반 사춘기 청소년의 망상 가득한 일기장에서 세계적인 고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도, 결국 그 작품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배경이 가장 컸던 것처럼 말이다.

더군다나 <말장난>은 “나만을 위해 창조한 세계”에서 “나만을 위한 언어”를 탄생시킨 글인데, 이건 외계문명으로 독자들을 데려가 알아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불친절함이 독자에 대한 예우라 아니라고 뒤늦게 판단했다. 사실, <말장난>에 사용되는 무수한 비유들은 (책 자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글쓴이에게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될지는 몰라도 책 밖의 독자들에게는 외국어만큼이나 난해할 수 있는 글이다. 이는 각 사물이나 사람이 지칭하는 바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언어가 아닌 <말장난> 세계에서 지칭하는 함축적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요약해서 꼭 집어말하자면, <말장난>은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내면과 조우하는 자칭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의 성장록이자 자기성찰록이라 묘사한 것이다. 흔히 Darknight of the soul 이라고 부르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자기 자신의 어두운 내면과의 조우,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트리거(trigger), 그리고 영적 성장을 직접 겪으며 라이브로 기록한 글이다. 개정판 책날개에도 알뜰게 한마디 던져놨듯이, 사람의 의식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면, 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만의 내면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언어까지 창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나면 결국 스스로 창조했던 세계와 언어를 파괴하고 모든 것이 말끔히 소멸시킨다. 그래서 <말장난>의 마지막 부분도 결국 이 괴로웠던 성장의 여정이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했었다고 치부해버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창조했던 세계와 언어가 파괴되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두어두던 것들을 깨고나와 구원과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써, 겪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글을 완성하고 나니 나도 한 단계도 빠짐 없이 똑같은 과정을 묘사해놨더라.

이는 내가 있어보이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분석학, 심리 프로파일링, 트라우마 치료, 영적경험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 금방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특

히나 트라우마 충격이나 예술적 창의력 폭발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한 번도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어느 천재 예술가의 말처럼. 나는 <말장난> 집필 당시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최소 2년 정도 이런 심화된 과정을 겪었다. 이 여정을 일찍이 겪은 덕분에 나는 일반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정신분석학 한 분야의 경험파 준박사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 “영혼의 어두운 밤”의 여정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설명이나 조언도 없어 자신들의 상태를 단순한 우울증, 조울증, 심지어는 정신분열증 정도로 치부하고 만다. 나 또한 그때 당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반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아보기도 했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한다. 그러나 우습게도 그 알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고 나면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 막연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더이상 낮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자칫하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제도화되지 않은 지식 중 하나로 심도있는 정신분석학이나 영적경험에 대한 대중의 저조한 이해도, 그리고 편견이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감으로 다가올지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이는 단순

히 개인의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감탄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신적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그나마 일찍이 스스로 영적 성장과 정신적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 아닌 축복이었다. 내가 만약 동일한 과정을 인생의 한창인 중년기 때 겪었더라면,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대신, 나에겐 시기적절하게 마음껏 절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기적처럼 주어졌고, 누구보다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트라우마와 무의식을 이 정도로 꿰뚫어볼 기회조차 없는 것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던 이 절망의 시간은 내게 두 번 다시 없을 축복이었다. 적어도 내가 나를 마주하는 시간 동안은 세상에게 나를 설명하거나 이해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첫 <말장난>은 특히 집필 당시 출간 계획을 단 한번도 염두해본 적 없이 오히려 누가 볼까 철저한 고립 속에서 쓴 글이었다. 그런데 그 꼭꼭 숨겨두던걸 어찌어찌하다보니 빨개벗은 모습 그대로 세상에 툭 튀어나오게 된 아이다. 덕분에 나는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날 것 그대로의 글을 썼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러한 고립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불려온 경이로움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인지 이 점을 간파한 어느

독자분의 날카로운 후기에 의하면 책의 “사유가 너무도 명백히 작가 소유인 것이 느껴져 내가 스며들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도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독자님은 도대체 훗날 어떤 책을 쏟아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단지 구태여 안 겪어도 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비스무리하게 해 본 사람으로, 어느 정도 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낄 뿐이다. 내가 겪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성장통이나 변성기처럼 흔히 겪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험 자체가 워낙 정신적이고 사적이다보니 대중적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개고생할 뿐이다. (나만 개고생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겪는 인생 우여곡절이 다른 것처럼, 누구는 이번 생에 조금 더 별난 일을 겪고 누구는 조용히 지나가고 할 뿐이다.

후기를 쓸 생각이 없었다는 사람의 후기치고는 굉장히 말이 많은 후기였다. 사실 작품에 대한 해설보다는 내가 그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하게 된 정보량이 많아져 글이 길어졌을 뿐이다.

나는 정말로 그 어느 누구와도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남들보다 조금 더 험했던 내면의 아이를 마주하는 “영혼의 어두

운 밤” 과정을 겪었다. 천둥, 번개의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이 노하셨다고 별별 떨어던 것처럼 말이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실 알고나면 시시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의 상태에서 겪으면 잊을 수 없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알고 나서 괴로워하는 걸 무지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추천한다. 더군다나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무엇을 알아야하는가”의 “무엇”을 몰라 방황하는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누구나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리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다만 작은 기대가 있다면, <말장난>을 접하는 독자 중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구원의 손길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2020. 09. 개정판을 쓰며

Junse

*이 전자책은 “말장난: 태어나버린 이들을 위한 삶의 방법론” 미리보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억눌린 내면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선물하세요.

*〈말장난〉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개정판 전자책을 찾아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의 무료 배포를 환영합니다.

* “브런치 넷의 서재” 검색해 최신 글 구독하기